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774.4	19.0	149,000	-2.0	19.2	16.5	55.3	103.8	49.8	0.7	0.7	0.7	1.4
현대로보티스	7,027.7	21.3	431,500	3.6	4.9	16.9	13.3	5.8	4.9	0.8	0.7	14.1	14.7
현대알렉스틱	808.3	6.9	79,200	-2.2	-19.9	-28.3	-30.5	7.5	6.5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777.7	8.7	180,000	4.0	7.1	9.4	6.5	11.4	8.5	1.3	1.1	11.7	13.9
삼성중공업	3,839.1	16.9	8,330	-0.2	6.5	31.1	28.8	52.5	26.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06.4	4.8	27,250	0.2	19.8	80.5	96.0	10.5	11.5	0.8	0.8	8.5	7.0
현대미포조선	2,190.0	13.3	109,500	-1.4	8.4	18.4	39.1	23.6	17.1	0.8	0.8	3.6	4.8
한진중공업	342.0	6.8	3,225	0.5	-5.1	0.2	-2.6	64.9	162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928.7	31.1	78,300	-2.1	36.2	45.8	43.9	13.8	135	1.9	1.7	14.6	13.3
두산밥캣	3,238.0	27.0	32,300	0.5	-7.7	-5.9	-9.8	11.8	11.2	0.9	0.9	7.4	7.6
현대로템	1,338.8	25.3	15,750	1.0	4.3	-17.1	-16.0	20.3	13.8	0.9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21.3	48.1	23,600	-2.1	-1.9	6.5	4.9	10.7	9.8	0.9	0.8	8.8	9.0
성광밴드	347.5	16.4	12,150	-0.4	-4.0	20.9	21.7	1,074.0	43.6	0.8	0.8	0.1	1.8
태광	344.5	15.7	13,000	0.8	-11.6	8.3	7.9	77.6	37.9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660.8	9.7	15,600	0.6	4.3	-0.3	1.6	12.9	9.6	0.6	0.5	4.3	5.3
두산인프라코어	2,010.7	14.2	9,660	3.9	-1.9	13.1	11.2	8.6	7.7	1.0	0.9	11.8	12.3
두산엔진	398.2	3.2	5,730	-0.7	43.4	47.9	55.5	-188.1	57.9	0.7	0.7	-0.4	1.3
한국항공우주산업	5,020.0	17.7	51,500	-2.1	3.1	11.5	8.5	36.6	25.3	3.9	3.5	10.6	13.9
한화테크윈	1,580.6	13.3	30,050	-0.8	6.7	-12.1	-15.5	23.6	152	0.7	0.7	2.9	4.3
LIG넥스원	1,086.8	11.4	49,400	-0.1	0.0	-11.3	-17.4	19.4	13.9	1.7	1.5	8.9	11.5
태웅	394.1	3.6	19,700	-0.5	-8.4	6.2	1.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23.2	5.0	8,270	0.5	-6.9	71.0	63.8	-344.6	48.9	24	24	-0.7	5.0
한국기본	293.2	16.0	6,670	-0.3	0.3	28.7	24.4	55.4	29.8	0.9	0.9	1.7	3.1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받아 관리종목에서 빠져

대우조선해양은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적정' 의견 판정을 받은 2017년도 연결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23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고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Minerva unveiled as new entrant in LNG shipping

그리스 Minerva Marine은 선대의 첫 LNG선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발주한 선박은 17.4만CBM급 LNG선 2척이며, 인도는 2021년으로 예정됨. Minerva는 LNG선 시장에 진입을 위해 삼성중공업과 논의한다고 보도됐으나, 발주는 대우조선으로 향함. 선가는 1.85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Romania takes back control of Mangalia yard

루마니아 정부는 독일 Damen과 함께 대우망갈리아 조선소(DMHI)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지분은 루마니아 정부가 51%, Damen이 49%를 가질 예정임. 작년 Damen이 51% 지분을 290억원(2,590만달러)에 매입하려 했으나, 49%를 보유했던 루마니아 정부가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함. (TradeWinds)

조선 빅3 '순항'… 50.6억원 수주, 목표 17.6%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50.6억달러를 수주했다고 알려짐. 3월 현재 조선 3사의 연간 수주목표 287억달러 중 17.6%를 달성함. 특히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감지되며, 클락슨은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1,134척, 내년 1,444척을 전망했다고 알려짐. (매일경제)

Kyklades Maritime orders pair of VLCC newbuildings

그리스 Kyklades Maritime은 현대중공업에 31.9만DWT급 VLCC 2척을 지난달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그러나 지난달에 공개되지 않았고, 옵션도 미공개 상태임. 인도는 19년 말에서 20년 초, 선가는 8,500만달러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됨. 선기는 작년 11월에 발주한 선거보다 높다고 알려짐. (TradeWinds)

성동조선, 결국 법정관리 신청…노조 "구조조정 철회" 반발

성동조선해양은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함. 법원은 실사를 진행한 후 회생가능성 평가와 회생계획안 인가 등을 진행할 계획임. 이후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짐. 반면 성동조선해양 노조원들은 법정관리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상황임. (EBN)

South Korean yards court Zvezda deal

국내 조선 3사는 러시아 Zvezda 조선소가 LNG선 건조를 할 수 있게 돋는 기술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알려짐. 협약을 위해 조선 3사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결정은 6월 말로 기대됨. Zvezda는 Arctic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쇄빙LNG선 15척 건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상황임. (TradeWinds)

운임 최저치 추락…시름 깊어지는 해운업계

3월 셋째 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75.46p로 전주 대비 54.03p 하락함. 이는 작년 최저치 703.67p와 비교해도 대폭 낮은 수치임. 최근 운임하락은 선사들의 발주가 증가하면서 수급 불균형 심화로 발생함. 반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 내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전망임.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